

지역 소식통



완주, 재가 암 자조모임 운영

완주군이 관내 재가 암 환자와 가족 20여 명을 대상으로 재가 암 자조모임을 운영해 심신 안정을 돕고, 재활 의지를 북돋고 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암 환자들 간 상호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환자에게 재활 의지를 북돋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암은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식이조절, 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뿐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 등 정서적 문제의 관리도 필요하다.

최근 열린 자조모임에서는 암 환자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과 마음 치유 강의를 통해 긍정적 정서 함양을 돕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사랑체크카드

발급카드사 4개로 확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부터 김제사랑상품권 발급카드사를 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사랑상품권은 올해 5월 김제사랑체크카드를 출시하며 발급카드사를 삼성카드, 농협카드, 전북은행카드 등으로 확대하였고 이번에 새마을금고 카드를 추가하여 김제사랑카드 발급카드사가 총 4개로 확대된다.

김제사랑체크카드는 기존 총전식 선불카드의 불편함을 보완 출시하여 삼성페이, 김제시택시요금 결제, 그리고 고향사랑공제 이에서 송금과 잔액 이동이 가능한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 새마을금고 카드 출시로 인해 김제사랑체크카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김제사랑체크카드 발급 방법은 기존 김제사랑체크카드 발급 절차와 동일하며 새마을금고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고향사랑공제 이 앱이나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 동네 복지시니어 시범 운영

김제시 퇴직공무원들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부터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사회위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복지시니어' 사업의 본격적인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내실있는 복지시니어 운영과 활동을 위해 지난 11월 30일 복지시니어로 선정된 16명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전달한 후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위촉된 복지시니어들은 4일 첫 번째 활동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7개월간 지역사회 사회위기 해소를 위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촉된 한 복지시니어는 "퇴직 후에도 조금이나마 지역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다"며 "우리 주변 이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복지시니어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동네 복지시니어 사업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김제시는 4일부터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사회위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복지시니어' 사업의 본격적인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적시에 발굴·보호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복지시니어 활동에 행정적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계층 지역주민 발굴하는 제도로,

지난 10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앙 3개 부처와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시범운영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2024 노인일자리 96개 사업 참여자 모집

6일부터 22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대비 505개의 일자리를 더 제공한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 5,175명, 사회서비스형 540명, 시장형 821명, 취업알선형 80명

이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가능)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고 시장형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근무기간과 급여는 공익형의 경우 11개월에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에 월 63만 4천 원이며, 내년도 급여는 공익형이 올해 대비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4만 원이 오른 금액이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분야에 따라 신분증과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

등록등본을 지참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인정액, 세대구성, 활동 역량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일이 2024년 1월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4일 완주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군정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졌다.

완주군은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를 통해 2023년도 주요성과 보고와 2024년 군정운영 방향, 2024년도 예산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2024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2023년 약 8,187억원에서 33억 증

가한 8,22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약 7,766억원으로 사회복지·보건 32.3%, 농업해양수산 16.57%, 예비비 및 기타 15.11%, 환경 8.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68% 등으로 편성됐다.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제안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서남용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바탕 짓고 같이 선심성 예산과 행사성 예산, 이월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중기)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 등 5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심부건)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이수) 완주군 통합 온라인 소풍물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를 진행해 원안 가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이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후계농 간담회 및 워크숍'을 열었다.

완주군, 청년후계농 간담회·워크숍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위해

완주군이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후계농 간담회 및 워크숍'을 열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년후계농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 영농 3년차 미만의 농업인 가운데 선발한다. 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올해 완주군 청년후계농 규모는 36명으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10명을 선발했다.

최근 경천애인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청년후계농, 관계공무원, 현장지원단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 자리는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청년후계농들은 자금 문제, 품목 선정 문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이에 대해 농업 컨설턴트, 선농농가 등 전문 농업인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품목별 농업기술과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등 다양한 경험을 전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후계농들은 "정보공유와 소통의 시간이 현장 애로 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기술교육을 통해 청년후계농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군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어린이 도서관 미션 챌린지 '눈길'

김제시립도서관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프로젝트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 1~6학년년을 대상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어린이 도서관 미션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3월 독서퀴즈를 시작으로 매달 북큐레이션 N행사, 5자토크, 한줄서평 등 어린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여 책 읽기에 흥미를 높이고 꾸준한 독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매달 말 제시된 활동 과제를 완료한 초등학생 5명을 추천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지난 11월은 '할 송달송 독서퀴즈'로 민복이네 딱집을 읽고 5문제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9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이번 12월에는 '생각을 나누는 한 줄

독서감상문'으로 책 한 권을 읽고 느낀 점, 생각나는 좋은 문구 등 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한 줄 이상 적어 공유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여 참여하거나, 아동실에 비치된 응모지에 내용을 적어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응모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린이 도서관 미션 챌린지로 도서관 이용이 더욱 재미있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매달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꾸준한 독서습관 형성과 독해력·사고력·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